•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레미야에게 증보기도를 요청함

1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래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와 2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때 우리의 수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고 너희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5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소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6 좋은 나쁜 당신을 보내 간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될 것입니다."

· 유다 땅에 남으라는 응답

7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8 예레미야는 가래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놓고 9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보내 너희의 간구를 드러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0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11 여호와와 말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구하고 그의 손에서 건져 낼 것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로 도피하려 마음을 먹어놓고는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지 10일 만에 이집트가 아닌 유다 땅에 남으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며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 하나요? (5-6절)
2.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나요? (10절)

• 알아가기

내가 두려워하며 도피하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일에 대해 기도할 때, 내 결정을 지지해주는 응답이 아닌 실행하기 곤란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나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목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불순종에 대한 경고**

13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14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을 주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15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16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붙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싹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17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올 재앙에 살아남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8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노여움과 분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쏟아부어진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갈 때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 백성이 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에레미야

19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20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21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22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 3 -

3 묵상하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라가 죽은 것(41:1-3)을 바벨론이 반역으로 여기고 보복하러 올라 밖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한 이집트로 피하려 한 것입니다(14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으라고 하셔도 이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공포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씀에는 귀를 막은 채 세상의 방법, 사람의 지혜로 두려움을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노력들을 모두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요즘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발버둥 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혹은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방법들로 해결하려던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내려놓을 것과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요?
- ② 하나님 안에서 선한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기에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4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결국 이집트로 떠나는 백성**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 2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3 오직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4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5 오히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 곧 그들이 쫓겨난 모든 나라로부터 유다 땅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 6 곧 남자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와 함께 남겨 둔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7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에 들어가 다바네스까지 이르렀다.

· **이집트에 멸망을 선포하심**

8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9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에 있는 포장된 곳에 진흙으로 묻어라.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여기에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는 그 위에 왕의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11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12 내가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으로 자신을 감싸듯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 몸을 감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13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벤세메스 기둥들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 5 -

3 묵상하기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유다 백성은 이미 어떻게 할지 결정해놓고는 확인하듯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신들의 뜻과 반대로 응답하시자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한 대로 이집트를 향해 떠나 버립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구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는 나의 작은 시야가 아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4 적용하기

나에게 유리한 말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에는 바로 "아멘!" 하고, 내 생각과 다르거나 거슬리는 말씀은 못 들은 척 무시하는 나의 모습 속에 유다 백성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내 뜻에 맞추려는 교만이 내게 있다면 이제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답정너'인 사람을 보면 어이없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답정너'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②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생각대로 추진하고 진행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가 정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유다가 멸망한 이유**

1 이집트 땅, 곧 므딤,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에레미야에게 일한 여호와와 말씀입니다. 2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성읍들이 폐허가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3 이는 그들이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5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6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됐다.

· 계속되는 죄악들

7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 큰 악을 저질러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8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 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9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10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 7 -

3 묵상하기

유다가 멸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도 정치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픈 과거를 겪고도 백성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합니다. 과거에 그랬듯(5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이집트로 도망쳤고(1절), 과거에 그랬듯(5절) 또다시 우상숭배에 열심을 냈니다(8절). 우리는 여기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얻지 못하고 매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내게도 있습니다. 이 패턴을 반복한 결과가 멸망임(7-8절)을 안다면, 자꾸만 죄악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부르고,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10절).

4 적용하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멸망을 한 번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같은 연약함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말씀 하실 때 깊이 새겨듣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반복되는 죄의 첫바뀌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긴 유다 백성처럼,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② 나에게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오늘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8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집트로 간 유다 백성에게 멸망이 선포됨

11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12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13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14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는 백성

15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와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16 "당신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17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18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19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 9 -

3 묵상하기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껏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간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우상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고 재앙도 없었다면서 말합니다(17절). 그들에게는 자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꺼이 매를 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이 땅에서 잘살게 해주는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에 취한 나머지 영원한 평안을 포기한 그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구원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만, 그것도 축복만을 구하고 있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외면한 유다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유다 백성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 ②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했듯이 나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관계, 성적, 흥밋거리 등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상에서의 만족과 평안이 아닌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재앙을 내리신 이유**

20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와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21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22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23 너희가 희생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처럼 너희에게 일어났다."

· 멸망이 선포됨

24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25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 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26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27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28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29 "여호와와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30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 11 -

3 묵상하기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도 잘살았던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수차례 경고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우상의 덕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없음을 "들으라"(26절)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복은 커녕 재앙만 임할 것을 "보라"(26, 27절)고 말합니다. 여전히 경고하시는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내 귀와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던 유다에 선포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성적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등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상들에 내 귀와 눈을 열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다면, 이제 제대로 듣고 볼 수 있는 분별력과 돌이킬 용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나의 귀와 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② 매일의 QT시간에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상을 향해 있던 제 귀와 눈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슬피하는 바룩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말에 따라 바룩이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2 "바룩아, 네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 내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심을 찾지 못한다.'"

· 바룩에게 하신 말씀

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 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5 그런데도 내가 네 자신을 위해 큰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Self QT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악습,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